금수강산

11

주체109(2020)
루계 제375호 월간

 ISSN 1727—9062

표지: 경축의 광장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가 진행된 **김일성**광장이다.

마치와 낫과 붓으로 근로인민대중을 형상한 당마크와 《우리 운명의 향도자 백전백승의 기치》라는 글이 있는 가장물은 인민의 력사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행로를 보여주고있다.

리충성

뒤표지: 10월의 축포

편집: 최은혁

차 례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09

17

25

31

32

52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왜서인지 류례없이 간고했던 이해에 맞는 당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모든분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이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로동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있다는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것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것을 말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전초선과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뿐만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투적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 마을,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세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비루스에 의한 병마와 싸우고있는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두손모아 마음속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로력적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간고한 투쟁의 련속이였고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걸음한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아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빛나게 달성되였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 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년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뿐아니라 활기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강의하게 이겨냈습니다.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주의가 아니였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여 국가와 자기들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부문이 일떠서게 되였고 남들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안정형세를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리해해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때문에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 나라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매 가정, 매 공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75성상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켜주었습니다.

가장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이 이 피어린 려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여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위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당의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력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곡경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년륜을 새겨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함없는 충효심과 굴할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써 세상풍파를 다 뚫고 넘으며 위대한 10월명절을 승리의 단상에 떠올린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 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몸으로 뿌듯이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

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어린 믿음과 고무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수 없고 수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랄수 없는 최상최대의 신임이 있기에 나는 멸사복무의 사명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무수한 도전들을 주저없이 맞받아나갈수 있었고 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사전에도 나설수 있었으며 사상초유의 대재앙에도 강력히 대처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언합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립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놓았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대오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한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만큼 강한지 똑바로 알수 있게 할것입니다.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잘 알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대군과 군수로동계급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있거나 맞다들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속도와 질과 량이 변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수 있는 군사력 보유에 모든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목표들을 점령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람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것뿐입니다.
만약 힘이 없다면 주먹을 부르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령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위력한 최신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여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일떠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신심이 있습니다.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력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될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모든것을 다 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을 시작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당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리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속에서 더더욱 강해지고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다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갑시다.
끝으로 다시한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　　*　　*

조국수호자들의 보무당당한 열병식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조국에서 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였다.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여 열병종대들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열병식의 첫시작은 명예기병종대가 떼였다.

이는 공화국무력이 지난 세기 항일전의 말발굽소리 높이 울리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뒤를 이은 친위대오, 제1군단종대와 제2군단종대를 비롯한 각 군단종대들과 해군, 공군종대, 전략군종대, 저격병, 경보병종대…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조선로동당마크와 《75》라는 수자대형을 새기며 축포탄을 쏘아올리는가 하면 황홀한 비행운을 보여주는 열병비행 또한 평양의 하늘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지닌 장갑차종대들과 기계화종대들이 열병광장을 지나갔다.

조국에서는 이 무쇠철갑부대들이 인민군전투력의 상징으로, 무쇠주먹으로 간주되고있다.

열병광장을 누빈 현대적인 화성포들 특히 대륙간탄도로케트의 흐름은 조국의 존엄과 힘의 과시로 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식으로 완성한 최신무장장비들과 전략무기들은 조국인민이 력사의 온

갖 도전과 값비싼 대가로 하나하나 이룩해놓은 고귀한 창조물들이다.

특히 나라와 민족의 권위와 안전이 실려있는 무장장비들이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열병진군을 시작하자 관중들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는 자위적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은 사람들에게 민족적자긍심을 배가해주었다.

조국은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으로 령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천명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광장, 열광의 환호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를 지나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이 10월 10일 자기의 생일 75돐을 맞이하였다.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는 커다란 환희와 경축의 분위기에 휩싸이였다.

특히 **김일성**광장은 열광의 꽃바다로 물결쳤다.

그들속에는 로력혁신자들도 있고 자연의 대재앙속에서 졸지에 집을 잃고 새 집을 받아안은 기쁨을 안고온 인민들도 있었다.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서로 달랐지만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흘러넘쳤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운명을 보살피고 꽃피워준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마음이였다.

이러한 마음들을 안고 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와 군중시위에 참가하였다.

경축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일편단심 믿고 따르려는 조국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공동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채택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는 경축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이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한없이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당창건절은 더없이 친근하고 위대한 당이 있다는 커다란 행복과 긍지를 더더욱 가슴뿌듯이 새겨안는 기쁨의 명절, 행운의 명절, 혁명적명절이라는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장장 75성상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며 우리 혁명을 사소한 침체나 답보도 없이 끊임없는 상승에로 이끌며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향도의 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열광적인 환호를 터치였다.

이어 진행된 군중시위에서도 조국인민들의 감사의 정은 절정에 달하여 광장은 경축의 꽃바다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조국인민의 남다른 긍지를 담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만세!》, 《그 품을 떠나선 우린 못삽니다》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프랑카드, 구호와 표어, 선전화들을 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특히 엄청난 도전과 재앙을 당한 황해남북도, 개성시의 인민들이 격정의 환호를 높이 울리였으며 함경남북도와 라선시의 환호대렬에서는 당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세차게 끓어넘치였다.

시위참가자들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경축광장에서는 당의 품을 떠나 정녕 못사는 전인민적인 감정이 뜨겁게 응축되여 분출되였다.

행사들을 통하여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의지를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꺼지지 않는 홰불

조국에서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나라의 자랑이 되고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진행된 청년들의 홰불행진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0월 10일 밤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두손에 홰불을 든 각계각층 청년들로 하여 불야경을 이루었다.

홰불행진이 시작되자 불의 바다우에 경축의 글발들이 련이어 새겨지고 광장상공에는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불꽃대형이 눈부신 채광을 뿌리였다.

온 나라 청년들의 축하의 마음이 《어머니당에 영광을!》 등의 홰불글발로 타올라 경축의 밤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붉은 기발이 광장에 들어서자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고 혁명학원대렬, 청년대학생대렬, 근로청년대렬들이 행진을 개시하였다.

광장으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의 우렁찬 구호를 웨치며 《절세의 영웅》의 글발을 새긴 대렬들이 들어섰다.

《위대한 당》, 《최강의 군력》, 《자주》 등의 글발이 홰불되여 타오르는 광장에서는 청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계승자들로 키운 당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마음이 함성으로 분출되였다.

관중들은 청년들에게 고무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청년건설자들의 리상과 포부가 《멸사복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불꽃글발이 되여 물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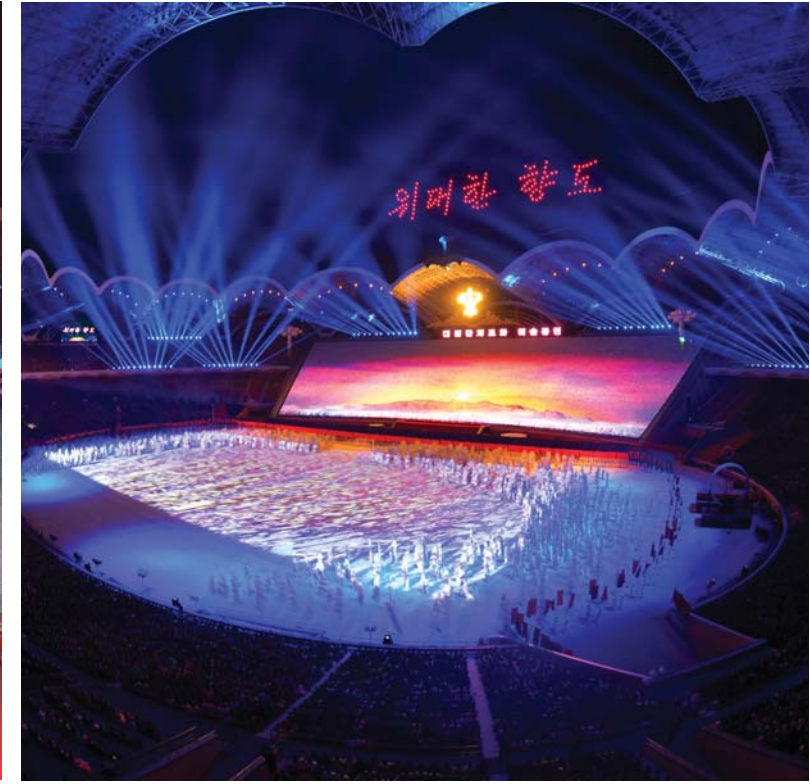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공격기질로 전진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청춘들의 담력을 과시하며 《척후대》, 《영웅청년》의 글발을 새겨든 청년들이 힘차게 행진해갔다.

경축의 밤하늘에 청년들의 힘의 분출인양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를 합창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김일성광장에 타오른 청년들이 높이 추켜든 홰불은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려정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홰불로 타오를것이다.

본사기자

백두의혁명정신
백전백승의기치
1945
원수님따라
천만리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창건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는데 그중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도 있다.

조국의 력사에서 빛나는 페지들을 형상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는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 열병식참가자들, 참관성원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서장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과 《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격동의 시대》, 《민족의 영광》의 장들, 종장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은 당의 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감동깊이 펼쳐보이였다.

본사기자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는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이날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수도 평양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들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향기그윽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본사기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10월의 축포야회

무수한 별빛으로 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축포를 보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담기도 하고 지나온 추억을 더듬기도 한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10월의 축포야회가 인민들에게 준 감흥은 류다르다.

경쾌한 선률에 맞추어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불보라가 터져오르고 평양의 상공에 축포의 불꽃으로 《75》라는 수자와 당마크, 《로동당만세》의 글발이 새겨질 때 군중은 자긍심에 넘쳐 탄성을 터치였다.

너무도 간고하고 어려운 해에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맞은 명절이여서 축포를 보며 오늘의 승리에로 향도해온 조선로동당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보는 인민들이다.

축포의 화광이 밤을 밝힌 광장에서 펼쳐진 군중의 원무는 축포야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본사기자

경축의 공연무대들

절찬속에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공연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여러 극장들에서도 경축공연무대들이 펼쳐졌다.

삼지연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과 함께 주요 예술단체 가수들이 출연한 무대에서는 인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긍지높이 불러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기념비적송가들을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이 울렸다.

《어머니생일》,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은 관중을 심원한 음악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웃음무대공연중에서

만수대예술단, 왕재산예술단 합동공연(왼쪽)과 국립교향악단음악회(오른쪽)가 진행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과 왕재산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공연무대에 조국인민들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곡들과 약동하는 기상과 숨결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이 오를 때마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녀성독창과 혼성합창 《인민은 일편단심》이 울려퍼지자 장내는 달아올랐다.

모든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온 승리의 년대들을 추억하게 하는 명곡들을 형상하였다.

모란봉극장에서 관현악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로 무대의 막을 올린 국립교향악단음악회는 장중한 선률과 정서적감화력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드리는 인민의 경의를 음악세계로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시종일관 관람자들에게 당에 대한 추억깊은 여운을 주었다.

온 나라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녀맹원들, 학생소년들이 마련한 경축공연들도 전인민적경사로 흥성이는 10월의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한편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이 펼쳐졌다.

행복넘친 생활을 랑만적으로 보여주는 익살과 기지, 해학으로 가득찬 화술소품들과 환상요술 등 특색있는 종목들은 관중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녀맹예술소조원들의 공연
《어머니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본사기자

다채로운 행사로 명절을 경축

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새로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을 돌아보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다양한 전람회들과 축전들이 열리여 10월의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꾸린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개관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매 호실들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전사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많은 혁명사적자료들과 혁명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전시된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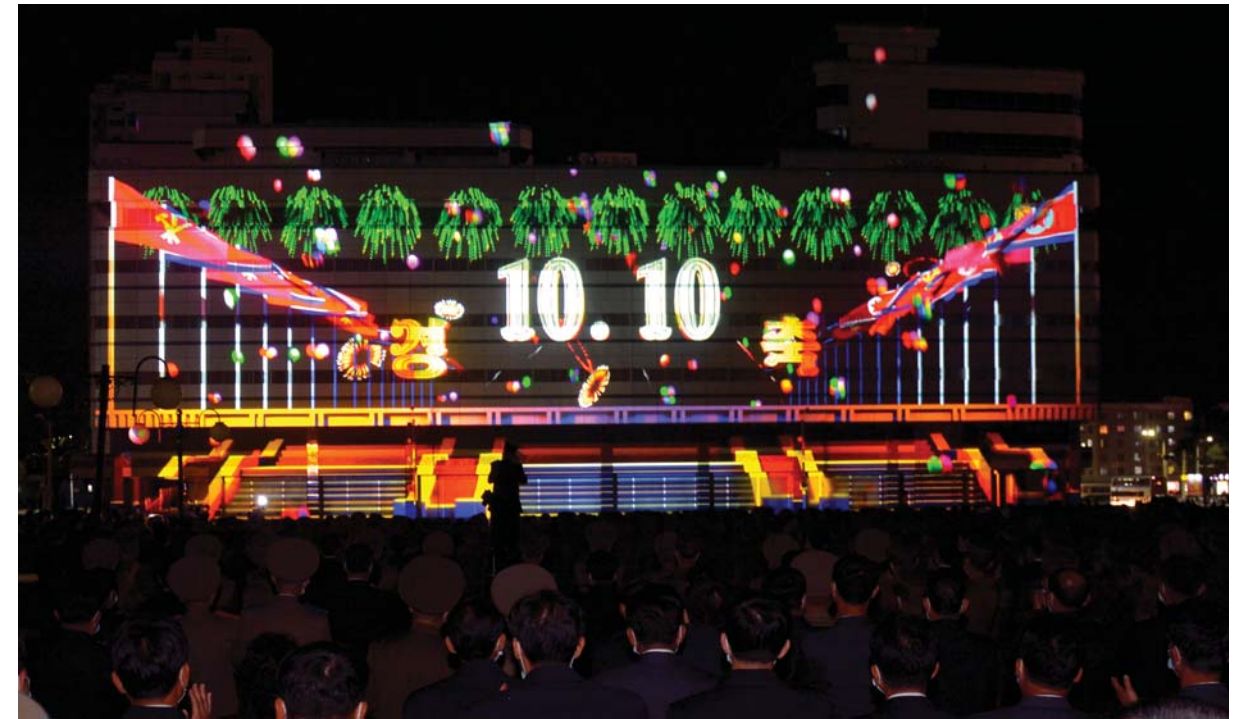
중앙사진전람회와 국가미술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기념주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금화(왼쪽)와 은화(오른쪽)

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혁명적 동지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준엄한 년대들을 동지적단결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력사를 다시금 뜨겁게 간직하였다.

조선우표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중앙사진전람회 등은 그 형식과 내용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위대한 향도, 백전백승의 75년》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조선우표전람회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75년력사를 보여주는 1 000여종의 우표와 우표수집애호가들이 출품한 수많은 작품들이 특색있게 전시되였다.

특히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신 우표들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일떠선 자력갱생, 자력부흥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반영한 우표들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표수집애호가 한일중은 전람회의 소감에 대하여 《이번에 전시된 우표들은 단순한 종이증서가 아니라 10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이번 전람회는 조선우표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

중앙산업미술전시회장(왼쪽)과 조선우표전람회장(오른쪽)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국가도서전람회와 중앙사진전람회의 참관자들도 전시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사진문헌들을 보면서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이뿐만아니라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관중들의 절찬속에 진행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는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경축행사들이였다.

본사기자

대상건설준공, 새집들이경사

개건현대화된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 대상건설물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지난 9월 30일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고산과일가공공장이 준공되였다.

대규모과일생산기지에 과일가공품들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가 건설됨으로써 고산과수종합농장은 우리 나라의 표준화된 과수종합농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이 지난 시기의 낡은 모습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개건현대화되였다.

공장은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생산할수 있게 모든 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고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선진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그리고 강원도에 이천군민발전소가 새로 일떠섰고 교육도서인쇄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술집약형기업체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혜산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도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동평양지구에 현대적인 체육기지가 꾸려졌으며 대동강기슭에 평양향료공장이 새로 일떠서 천연향료생산의 공업화토대가 마련되였다. 향료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공장은 여러가지 천연, 식용, 공업용향료를 생산하여 나라의 식료공업과 화장품공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평양국제비행장주변리들의 살림집건설이 결속되였고 태풍피해지역들에 농촌마을들이 일떠서 지역인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절전야에 개성시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의 입사와 관련한 보고를 기쁨속에 받으시고 새집들이하는 주민세대들에 행복을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것을 친필에 담아 당부하시였다.

은파군과 신계군, 평산군, 장풍군, 재령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피해지역들에서도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본사기자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피해지역들에 새로 일떠선 마을들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고산과일가공공장

개건된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향료공장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

오늘 조국은 력사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며 번영의 활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가고있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제재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지 않을뿐아니라 주체조선의 위용을 세계에 더 힘있게 과시하고있는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성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가지게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주인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민족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조국인민은 민족자주정신이 높은 인민이며 그것은 민족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고 그것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내세웠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그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자주가 민족번영의 활로라면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진리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에 사대와 외세의존사상과 결별하고 철저한 민족자주의식을 지닐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시였다.

해방후 일제의 군사적강점과 그 후과로 국고는 텅 비여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건국의 초행길을 헤친 조선인민은 또다시 전후 빈터에서 맨손으로 복구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믿을것은 오직 하나 자기 힘밖에 없다는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쌓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하였다.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조선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1990년대 중엽 제국주의자들의 가중되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선인민은 강의한 민족자주정신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이 짜놓은 《붕괴》의 시간표를 번영의 시간표로 바꾸어놓았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신념으로 간직된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조선이 힘있게 전진하고있을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있는것은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지니고있는데 있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활로를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영

더 좋은 자연환경을 위하여

-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리경심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사람들의 문명수준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 환경보호사업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에 큰 힘을 넣어오지 않았습니까.

국장: 그렇습니다. 조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사업을 사람들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왔습니다.

다 알고있지만 해방후 강철생산이 아무리 중해도 로동자들의 생명과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하면서 나라에서는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성진제강소(당시)의 원철로를 폭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유해공장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지법, 산림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들과 그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 채택되여 시행되고있습니다.

생산과 건설, 개발과정에 생기는 환경오염을 미리막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부문별, 지역별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고있으며 전국적인 환경감시망을 형성하고 대기와 물을 비롯한 나라의 환경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고있습니다.

산림부문에서는 위성자료에 의한 전국적인 실시간산불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산림병해충피해를 막으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연보호구들의 면적을 늘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최근시기만 놓고보더라도 백두산지구와 구월산지구, 묘향산지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된데 이어 주체103(2014)년 칠보산지구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습니다.

철새보호구들가운데서 평안남도 문덕군에 있는 문덕철새보호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인것으로 하여 주체107(2018)년 1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상지)로, 4월에는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지역망에 등록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도처에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있으며 하천을 전망성있게 정리하여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범위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국장: 12년간의 국가환경보호전략은 나라의 환경보호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작성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나라의 전반적생태환경을 회복단계에 올려세우며 록색경제에로 이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것이 이 전략의 총적목표입니다.

첫째로는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고 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도달시키는것이며 둘째로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고 자원을 보호증식시켜 나라의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회복단계에 올려세우는것입니다.

중앙해상환경보호조종소

해양국인 조국에서는 해상환경보호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주체100(2011)년 9월에 창설된 중앙해상환경보호조종소는 《깨끗한 환경, 즉 시대응》을 자기 활동의 리념으로 내세우고 지난 기간 나라의 령해와 강하천들에서 발생하는 배에 의한 오염을 신속히 제거하고 피해복구를 진행하는 등 해상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해상환경보호문제를 토론하고있는 중앙해상환경보호조종소 일군들

처음 조종소는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앞바다에서 외국선박침몰로 인한 기름루출에 대응하여 기름오염제거 및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조종소의 성원들은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작업의 순차와 제거방법 등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면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 조종소의 성원들은 환경피해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작업방법과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그것은 그후 여러차례의 기름오염 및 피해복구사업을 통해 보다 공고화되였다.

현재 조종소에서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배기름오염에 대처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있게 내밀고있다.

조종소의 일군들은 대응성원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기름오염사고를 가상한 탁상모의훈련을 선행시키고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실동훈련도 따라세워 종업원들이 그 어떤 배기름오염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응할수 있는 실천능력을 키워주고있을뿐만아니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배에서 루출되는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들과 설비들에 대한 연구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조종소의 리인철과장을 비롯한 조종소의 성원들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름오염제거에 리용되는 광물성기름분산제를 연구개발한것을 비롯하여 흡착식차단띠, 울타리식차단띠 등 해상기름오염제거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배기름에 의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가고있다.

이외에도 그들은 기름밀도시험기, 배기름오수려과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국제적기준에 맞게 연구제작하고 분석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춤으로써 해난사고와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있다.

해상기름오염을 제거하고있다.

조종소에서는 해상환경보호관련행사들도 의의있게 조직하여 련관기관, 단체들의 해상환경보호의식을 높여주는 한편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사업도 강화하고있다.

최창림소장은 《우리가 살며 리용하는 바다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바다자원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더 분발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셋째로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라의 경제를 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 록색경제에로 이행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량과 산업폐기물의 재자원화률, 생활오물의 종합적리용률, 도시록화덮임률을 높이며 각종 자연보호구면적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한편 해마다 자체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 의한 국제적협조가 적극 추진되는데 따라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축감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환경부문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하며 환경보호사업을 전인민적사업으로 전개하는것 등을 전략목표실현방도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오염의 확대를 방지하며 주요도시들과 수역들의 대기 및 물환경감시체계와 지역별, 부문별, 단위별오염물질배출장악체계의 확립 등이 추진되고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환경보호사업을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수록 인민들에게 더 좋은 자연환경이 마련될것입니다.

기자: 앞으로 환경보호사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　*　*

적극화되는 야생동물보호사업

조국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그 보호사업을 적극화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기자는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부소장 박사 김경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야생동물보호구들에 대한 전면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부소장: 나라의 야생동물보호증식사업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내놓기 위해서이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야생동물보호구들이 선정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구관리와 조사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여왔다.

우리는 이번에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국의 10여만정보에 달하는 26개의 보호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야생동물보호관리상황을 종합화하였다.

기자: 현재 야생동물보호구들의 관리상황은 어떤가?

부소장: 연구사들은 우선 산림자원상태를 조사하였다. 산림조성은 동물들의 서식환경상태를 보여줌으로써 동물보호구로서의 기능을 평가하는 기본지표로 된다.

북부고산지대에 위치한 10여개의 동물보호구들만 보아도 동물들의 서식에 유리한 산림상태와 물자원량이 풍부하다.

가문비나무를 위주로 한 삼송류, 봇나무, 참나무 등 키나무들이 혼성림을 이루고 개암나무, 들쭉나무를 비롯한 떨기나무들과 고비 등의 초본식물들로 층구조를 형성하고있어 범, 큰곰, 누렁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서식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중부이남지역의 야생동물보호구에서는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등의 넓은잎나무들을 위주로 떨기나무와 새초류를 비롯한 초본류들이 자라고있어 복작노루, 노루, 산양, 참매와 같은 동물들의 서식에 알맞춤하다. 또한 보호구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동물들의 서식조건도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인공굴과 새둥지, 동물이 잘 먹는 칡, 개암나무, 먹이용알곡 같은것을 많이 심거나 풀판을 조성하고 물웅뎅이들이 마련되여있으며 나무가지들에는 소금주머니들도 매달려있다. 이것은 산림감독원들의 수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연구사들은 서식지들에서 동물들의 실체들을 발견하였고 나무에 난 흔적과 배설물, 새둥지,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 동물들의 종구성과 마리수, 주요보호대상종들의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조사과정에 보호구들에서 큰곰, 곰, 표범, 산양, 승냥이, 꿩, 노루, 복작노루 등 포유류 40여종과 참매, 물촉새, 독수리 등 조류 200여종이 관찰되고 중부이남지역에서는 꿩, 노루, 복작노루의 마리수가 지난 5년전에 비해 근 1.5배나 늘어난것으로 확정되였다.

특히 함경남도 이북지역에서만 번식하는것으로 알려져있던 참매가 강원도 판교군과 세포군일대에 있는 양암산야생동물보호구와 황해북도 토산군에 있는 학봉산야생동물보호구에서도 발견되였다.

동물들의 서식지로 될만 한 새로운 산림들도 발견되였다.

산림생태계가 원상대로 보존되여있는 량강도 풍서군과 백암군, 강원도 법동군에서 큰곰, 곰, 검은돈, 사향노루를 비롯한 위기동물들의 활동이 관찰되고 함경북도 경흥군에서 조선범의 흔적이 발견되여 이 지대들에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이 가능하다는것이 추정되였다.

기자: 현재 야생동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부소장: 우선 산림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산불과 도벌, 람벌에 대한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지금의 산림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고있다.

그리고 년차별로 진행하고있는 산림복구사업을 비롯하여 야생동물들의 서식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기 위한 사업도 일관하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보호동물들의 증식과 먹이사슬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미 있던 보호구들의 면적과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고있으며 보호구들사이의 지역별생태통로들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야생동물보호구외에도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있는 산림지대를 찾아내여 보호구로 선정해주는 사업도 하고있다.

기자: 앞으로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한다.

* * *

야생동물들을 많이 퍼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 주체108(2019)년 촬영

◇ 일 화 ◇

조국산천을 가꾸어가시는 길에서

조국산천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시기 위해 애국의 자욱을 새기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확고한 결심

조국해방전쟁의 세번째 해도 다 저물어가던 주체41(1952)년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업부문 일군들이 작성한 《산림경리조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초안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한조항한조항 따져보시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시고 내용도 보충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이 규정을 집행할 주인들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산림보호원(당시)들을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순간 누구도 선뜻 말을 떼지 못하였다. 청장년들은 모두 군대에 나갔고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태반이 녀성들과 로인들이였기때문이였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일군들은 후방에 있는 그 로력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몇천명 소환하여 산림보호원으로 보내주자고 교시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앞으로 나라의 만년재부를 늘여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결코 조국의 촌토를 지키는데 못지 않은 중대한 문제로 보시였던것이다.

일깨워주신 문제

어느해 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기념식수를 하시기 위하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그이께서 시간을 지체하시지 않게 해드릴 생각으로 미리 파놓은 구뎅이에 나무모도 들여놓고 부드러운 흙도 무둑무둑 모아놓았다.

이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는 이렇게 심어서는 안된다고, 나무는 원래 자기가 구뎅이를 파면서 심어야 보람도 느끼고 의의가 있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전에 수령님을 모시고 릉라도에 나가 나무를 심을 때에도 구뎅이를 파고 나무모를 목도로 날라다 심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일군들이 다 삽을 쥐고 이곳 사람들과 같이 나무를 심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무는 한그루를 심어도 살수 있게 정성껏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무의 방향도 바로잡아주시고 흙을 덮을 때에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잘 넣고 흙을 다 덮은 다음에는 나무에 푹 물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강의》

어느해 가을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작업복을 입고 오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 품종의 잔디를 다 심어보고 그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잔디씨를 뿌리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앞으로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 잔디품종을 육종하면 금수산잔디로 이름을 달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지반을 조성하고 잔디씨를 정히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도시를 록화하는데서 잔디를 많이 심는것이 중요하다, 시내에 사철푸른 잔디를 비롯하여 좋은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으면 도시의 면모가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와 구역, 자기가 일하는 단위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생땅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평양시뿐아니라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려는것은 나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혈전의 준비

(전호에서 계속)

1930년의 전례없는 흉작과 그에 따르는 혹심한 기근은 우리가 동만에서 추수투쟁에 이어 새로운 대중투쟁을 벌릴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추수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군중의 투쟁기세를 늦추지 않고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춘황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춘황투쟁은 지주에게 쌀을 꾸어달라는 차량투쟁으로 시작되여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량곡을 몰수하는 탈량투쟁으로, 일제의 앞잡이들을 청산하는 폭력투쟁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동만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였다.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공세가 그처럼 악랄해지고있는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내성있게 그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였다. 대중단체들은 관문주의의 틀을 마스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시키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디서나 순풍에 돛단것처럼 그렇게 헐하게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푸르허마을에서 겪은 체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푸르허는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동네였다. 이 동네를 거치지 않고서는 돈화지방이나 남만일대로 자유롭게 왕래할수 없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소사하, 대사하, 류수하를 비롯한 린접마을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었다.

조직에서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명 파견하였으나 가는족족 다 실패하였다. 거기에 조직을 당장 박아넣어야 하겠는데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묘책을 찾을수가 없었다. 김정룡은 푸르허를 반동동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스파이나 무슨 백색조직이 있는것 같은데 도무지 정체를 밝혀낼수 없다고 분해하였다. 이 동네에 대한 말만 들으면 나도 이상한 생각을 버릴수 없었다.

푸르허에 송씨성을 가진 조직원이 한명 있었으나 그 동무의 힘만 가지고서는 반동분자를 색출해낼수도 없었고 동네를 혁명화할수도 없었다. 누구든지 목숨을 내대고 들어가서 잡아낼것은 잡아내고 조직할것은 조직하여 이 마을을 반동동네로부터 혁명동네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여 내가 푸르허에 가겠다고 자원해나섰다.

나는 소사하에 송동무를 불러다놓고 미리 약속을 하였다.

《이제 마을에 돌아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딸려서 머슴군총각을 하나 얻어온다고 소문을 퍼뜨리오. 그러면 내가 동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노릇을 하겠소.》

송동무는 눈이 휘둥그래서 반동이 심한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 게다가 머슴군노릇을 하겠다니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푸르허에 가는것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도 반대하였다.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에 앉아 푸르허마을로 들어갔다. 세수도 하지 않고 리발도 하지 않고 일부러 반편같은 용모를 해가지고 《반동소굴》에 침투하였다.

몇시간후 내가 송동무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있을 때 난데없는 기마경찰대가 먼지를 일쿠면서 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련락이 닿았는지 벌써 안도에서 경찰을 급파한것이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기마대가 온다고 아우성치자 나는 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교하의 이름모를 녀인네 집에서 겪은것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할가.

기마경찰들은 나를 가리키며 누구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송동무가 자기 집 머슴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기마경찰이 《공산당간부 한사람이 이 마을에 지도를 내려왔다고 하던데…》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양복이나 쭉 뽑아입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간부를 념두에 두고 달려왔는데 허줄한 덧저고리를 입고 얼굴에 검댕이까지 묻은 나를 보고는 헛걸음을 했다고 실망한 모양이였다.

나는 그때 우리 대렬내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까지 품었다. 내가 푸르허에 침투하는 것은 몇몇 책임일군들밖에 몰랐기때문이였다.

기마경찰들이 돌아간 다음

송동무를 돌아보니 얼굴이 새까매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배여있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이른새벽에 일어나 주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마당도 쓸고 소여물도 끓이였다. 그리고는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를 타고 매일 산으로 갔다. 산에 가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토론도 하면서 송동무에게 한가지한가지씩 일거리를 주었다.

나는 착실한 《머슴군》으로 동네에 소문났다. 그때 푸르허 사람들은 나를 어리무던한 《머슴군》으로만 알았다. 우물터에 얼음이 얼면 동네아낙네들이 나보고 손을 까딱까딱 흔들며 얼른 여기 와서 얼음을 까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런 부탁도 달게 받아들이였다. 마을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킬수록 내 몸에는 《머슴》의 체취가 깊이 배일것이고 내가 그들의 청탁을 성실하게 들어줄수록 밀정들은 나에게서 혁명가의 표징을 쉽사리 찾아낼수 없게 되겠기때문이였다.

하루는 송동무네 맞은켠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그날 마을사람들이 밀려와서 나더러 떡을 쳐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의례히 그런 일은 본때있게 할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였다.

농사로 한생을 늙어온 우리 할아버지는 보습질, 작두질, 떡메질 세가지를 다할줄 알아야 진짜배기농사군이라고 늘 말씀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떡을 쳐본 일이 없었다. 우리 집 살림살이는 떡을 쳐먹으면서 호강하리만큼 풍족하지 못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자니 내 정체가 드러날것 같아 걱정되였고 그 청을 거절하자니 《머슴》답지 않은 처사인것 같아 주저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일이 바빠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번 찾아와서 자꾸 독촉하는 바람에 더 버티여낼수가 없었다.

내가 잔치집마당에 나타나자 그 집주인들은 일손을 덜게 되였다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몸집이 강마른 앞집 중로인의 손에서 떡메를 빼앗아 내 손에 쥐여주며 《이 사람, 오늘 떡맛은 임자의 솜씨에 달렸으니 한번 본때를 보이게.》라고 하였다. 남의 속내도 모르고 방금 찐 떡쌀을 함지박에 담아내오느라고 수선을 떠는 안주인의 거동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머슴》의 솜씨를 보겠다고 내 량옆에 진을 치고 서있었다. 농촌에서는 떡치는 솜씨를 구경하는것도 하나의 멋이고 생활이였다.

나는 떡메를 쥔 손에 침을 바르며 속으로 에라, 될대로 되여라, 힘자라는껏 떡메를 휘둘러보자, 이놈의 일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겠지, 머슴이라고 만사를 통달하는 법이야 없지 않겠는가, 기껏해서 솜씨가 서투르다는 비난이나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때 내 심중을 알아차린 송동무가 나를 딱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그는 《이 사람, 그 팔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친다고 그래? 내가 팔을 잘 건사하라고 몇번이나 당부하든가.》 하면서 일부러 위엄을 풍기며 나를 핀잔한 다음 잔치집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팔을 상해서 떡을 치지 못해요. 이웃집경사인데 내가 대신 쳐주지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을녀자들은 그날 손님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때에도 《머슴군》대접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서도 나에게만은 그저 손에다 쥐여주었다.

나는 마을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수모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공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푸르허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에 고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 고장의 혁명화과정에 비하면 식은죽먹기였다고 할수 있다. 나는 이 마을에 달반가량 있으면서 조직을 꾸리고 핵심청년들을 발동시켜 밀정도 청산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다음 동무들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나는 그때 동무들에게 《어데든지 혁명가들이 배기지 못할 곳은 없다. 지금까지 배기지 못한것은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군중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사식으로 혁명을 했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 나는 부대를 데리고 푸르허에 간적이 있었다. 빨찌산대장이 되여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 군중대회를 열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나에게 얼음을 까달라고 손목을 까닥거리며 불러대던 젊은 녀인이 연설을 마치고 말안장우에 올라앉는 나를 보고 너무 놀라 《에구,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던 〈머슴군〉총각이 아니요? 저이가 혁명군대장이 됐구려.》하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은 이렇게 극복되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난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류혈을 가져다주었던 구국군부대와의 사업이였다.

(끝)

혁명가의 고결한 한생

조선혁명의 첫 세대들의 전렬에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성전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숭고한 모습도 있다.

1905년 11월 4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오늘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탄생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시였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의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시였다.

혁명의 개척기에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으신 백산청년동맹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그 후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애국청년들과 각계각층 군중들을 교양하여 반일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주체19(1930)년 7월에 결성된 조선혁명군에 입대하신 그이께서는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그 나날 김형권동지께서는 풍산군 파발리(당시)에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질러 《오빠시》라고 불리우던 악질순사부장을 단호히 처단하시였다. 그리고 주재소앞에 모여선 군중들에게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후 김형권동지께서는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정치활동을 능숙히 벌리시였으며 그 과정에 맞다든 적들에게 된벼락을 안기시였다.

그러던 주체19(1930)년 9월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주구의 밀고로 그만 일제경찰의 포위속에 들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탄알이 떨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원쑤들을 쓸어눕히며 용감하게 싸우셨지만 불행하게도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

일제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를 꺾어보려고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수는 있다, 그러나 밝아오는 태양의 빛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할것이다, 이제 그 빛은 얼었던 조국땅을 녹이고 만물을 소생시킬것이다, 그날은 꼭 오고야만다고 하시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재판정에서도 빼앗긴 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운것이 어찌 죄로 될수 있는가고 일제교형리들을 준렬히 규탄하시며 재판정을 오히려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는 심판장으로 만드시였다.

일제교형리들은 김형권동지의 굳센 의지와 엄엄한 기상에 전률하였다.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어느날 동지들이 구하여준 《동아일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활동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시였다.

악에 받친 일제교형리들은 김형권동지를 십자형틀에 묶어놓고 온갖 야수적고문을 감행하였지만 그이의 혁명적절개를 꺾지 못하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시며 옥중투쟁을 벌려나가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3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당시를 회상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형권삼촌은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라고 회고록에 쓰시였다.

진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생애는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혁명절개의 고귀한 모범이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평양탄광기계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은 서부지구탄광, 광산들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고있는 공장이다.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이곳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은 크다.

주체48(1959)년에 전문탄광기계설비생산기지로 창립된 공장은 지난 기간 설비의 현대화를 중요하게 내밀어 생산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나갔다.

가공직장에 있는 원통연마반과 평면연마반을 비롯한 CNC공작기계들은 제품의 가공정밀도가 높다.

철판절단기와 프레스, 대형압축기 등 제관직장의 설비들도 년간 수천t의 가공능력을 가지고있어 생산계획수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공장은 지금까지 대형탄차와 유압동발, 긁개사슬콘베아 등 각종 채탄설비들을 만들어 서부지구탄광들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었다.

공장은 탄광기계제작뿐아니라 해마다 대상건설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수많은 설비와 부분품들도 만들어 보장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중형긁개사슬콘베아 수십대를 만들어 탄광에 보내준 공장은 순천린비료공장과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대형, 중형트라스들과 여러 종류의 콘베아, 각종 설비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공장에서는 지금 광산들에 보내줄 사기원판식진공탈수기를 제작하고있는데 이곳 생산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모든 질적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공장의 제품들은 지금 탄광들과 대상건설장들에서 수요가 높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모 성 영 웅

로력영웅 리병희

강원도 원산시 방하산동에 사는 리병희녀성은 로력영웅이다.

그는 아직 특별한 영웅적위훈을 세운적이 없는 조국의 평범한 녀성이다.

하지만 그는 모성영웅이라는 부름으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리병희녀성(55살)은 주체79(1990)년 윤채호와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명(2남 8녀)의 자식을 낳아키우고있다.

그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것을 어머니로서의 성스럽고 마땅한 의무로 간주하여왔다.

사실 한두명도 아니고 10명의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자식들을 키우는데서 정신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그들모두를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마음을 썼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학교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이 언제나 고향과 동무들을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가르쳤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 찾아가 아버지세대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도 보여주었다.

때로는 마을뒤산에 올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자기 고향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워주었다.

그는 중요기념일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인민군렬사묘를 찾아 렬사들을 추모하며 전승세대들의 참된 희생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교양하였다

이렇게 그는 자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우는데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첫 교양자가 되였다.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 학창시절을 마친 여섯자식은 조국을 지키는것이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고 하면서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지금 두 딸은 이미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셋째부터 여섯째까지는 군사복무를 하고있다.

나라에서는 10명의 자식을 낳아키운 리병희녀성에게 로력영웅의 값높은 칭호를 주었다.

그는 지난 기간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지금도 리병희녀성은 힘들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옛날부터 재산자랑하지 말고 자식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자식을 많이 낳은 기쁨보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칠줄 아는 자식들을 키운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리병희녀성의 이러한 소행은 전국의 많은 녀성들을 감동시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모성영웅 리병희의 가정

활발히 진행되는 동포들의 선전활동

공화국의 해외동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는 재중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선전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동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에 대한 선전활동을 광범히 전개하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기관지 《백두-한나》(잡지와 인터네트)에 《**김일성**주석 탄생일 108돐 경축》과 《우리는 공화국의 행복한 해외동포》 등의 제목으로 된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7. 27의 기적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과 인민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백전백승의 반미대결력사는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신 소식과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여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신 소식 등도 인터네트홈페지에 신속히 올리였다.

그들이 올린 《영원한 추억》, 《깊은 우정 영원히 기억하리》 등의 제목으로 된 기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울화가족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그대로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산간문화의 리상도시로 전변된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에 대한 사진들과 글들을 게재하였다.

중국 동북3성지역의 재중동포언론들인 《연변일보》, 《길림신문》(신문과 인터네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김정은**위원장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조선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 《**김정은** 조선최고지도자 평양종합병원건설현장 시찰》,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찾아 렬사 추모》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숭고한 인민관에 대하여 적극 선전하였다.

지난 7월 《연변일보》는 《조선, 사회주의경제건설 강력추진》이라는 제목아래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원산구두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재중동포들은 조중친선관계에 대한 기사들도 적지 않게 게재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지난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 10돐을 맞으며 기관지 《백두-한나》(인터네트)에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연변일보》는 지난 7월초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9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 《조중친선관계는 끊임없이 강화발전될것이다》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련재기사 《국제주의전사 라성교》, 《죽음을 무릅쓰고 남을 구원한 항미원조위생원 원보산》 등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자들의 위훈담과 조중친선관계가 오늘날 조중수뇌분들에 의하여 나날이 발전풍부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전호에서 계속)

3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과 맺으시고 꽃피워주고 지켜주신 혈연의 정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피줄처럼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담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와 축하문, 축전들을 거듭 보내주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련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소박한 축하의 인사도 정겹게 받아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실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정깊은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을 다시금 받아안은 저희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의 세계가 얼마나 폭넓고 웅심깊으며 얼마나 열렬하고 자애로운가 하는것은 공화국창건 65돐과 70돐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에도 력력히 어려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제일먼저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건설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공화국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필승불패의 성새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펼쳐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하여 백방의 노력과 뜨거운 정을 기울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축원의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감사의 정이 어린 사랑의 축하문을 받아안았으니 재일동포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저의 뇌리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0년을 맞으며 보내주신 축전의 구절구절이 가슴뜨겁게 어려옵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맺은 혈연의 정을 영원한 피줄로 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희들이 응당 먼저 올렸어야 할 고마움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생일 85돐을 맞는 저에게 존경하는 허종만의장동지라고 정겹게 불러주시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저를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94(2005)년 2월 저의 생일 70돐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저에게 공화국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더없이 은정어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생일축하전문을 받아안은 그날 저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6년전 제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종만동지의 생일이 자신의 생일보다 며칠후인데 조국에 오면 함께 쇠자고 교시하셨던 일이며 제가 무랍없이 불러드렸던 노래까지도 장군님께서 자주 회고하신데 대하여 정깊게 추억해주시면서 장군님의 마음과 정을 담아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되새겨졌습니다.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저희들은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보내주신 2억 1 66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았습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고 더우기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진 비루스감염증위협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불가능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하는 복잡다단한 시기에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정이 어린 거액의 자금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참으로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장장 60여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의 대서사시이며 오늘도 조선학교의 창가마다에서 울려퍼지는 동포자녀들의 랑랑한 글소리는 절세위인들의 정의 세계에 대한 가장 열렬한 찬가입니다.

그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위대한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으며 새로 제정된 **김정일**훈장이 우리 총련일군들에게도 수여되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참다운 생을 마친 총련일군들의 유해가 애국렬사릉에 안치될수 있었으니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맺어주고 꽃피워주고 지켜주신 혈연의 정을 영원한 피줄로 이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언덕을 넘어 이역만리에로 줄기차게 흐르는 절세위인들의 정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기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따사롭게 비쳐드는 위대한 태양의 정입니다.

정으로 뭉친 단결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된 혈연의 정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용암이고 가장 뜨거운 감사의 노래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신념의 맹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제일가는 힘이고 생명선이며 우리 재일동포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오늘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지만 태양의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불변궤도를 따라 정면돌파전으로 과감히 전진하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총련결성 65돐에 즈음하여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육친의 정을 맺어주시고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혈연의 정을 영원한 피줄로 이어주시고 주체위업과 총련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붓을 놓으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주체109(2020)년 5월

민족의 향기

조선민족의 첫돌맞이풍습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례의범절이 밝고 부모자식과 형제간, 이웃간의 사랑과 정이 남달리 깊은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고상한 도덕과 미풍량속은 첫돌맞이풍습에도 잘 반영되여있습니다.

첫돌맞이는 어린애가 태여나 1년이 되는 날에 그의 장래와 건강을 축복하여주는 전통적인 풍습의 하나로서 조선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 아이의 부모들과 가족성원들 그리고 이웃들과 부모의 친지들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의 행복과 건강을 축복하여줍니다.

그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돌맞이는 크게 첫돌옷준비 및 입히기, 돌상차림, 돌잡이의식,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민족음식대접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첫돌에 입히는 어린이들의 색동옷은 남자애인가 녀자애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남자애에게는 색동저고리에 람색바지를 입히고 금박이나 은박을 찍은 전복(소매를 달지 않고 뒤솔기를 째여두어 다른 옷우에 입는 덧옷)을 입힌 다음 허리띠를 매주고 복건(생일날이나 명절날 총각아이를 차려입힐 때 머리에 씌우는 쓰개)을 씌워줍니다.

녀자애에게는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히고 허리띠를 매여줍니다. 머리엔 금박이나 은박을 찍은 조바위(귀와 뺨을 가리우게 만든 머리쓰개)를 씌우거나 리봉 같은것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돌을 맞는 어린이의 돌띠(허리띠)에는 그의 건강과 장수를 념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돌주머니에는 어린애가 언제나 행복하고 풍족할것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는 어린이를 돌상에 앉히고 돌잡이의식을 진행합니다.

돌상에는 쌀, 국수, 떡, 과일, 당과류, 실, 학습장, 연필, 놀이감 등을 차려놓습니다.

어린이가 돌상에 차려놓은 여러가지 음식이나 물건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잡는것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무엇을 골라잡는가에 따라서 그의 장래를 예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인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의 밝은 앞날과 행복을 바라는 념원이 반영되여있습니다.

돌잡이의식이 끝난 다음에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첫돌때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을 돌음식이라고 합니다.

일가친척들과 이웃들이 첫돌을 맞는 어린이의 놀이감 같은것을 가지고 찾아와 모두가 한가정처럼 어울려 음식들을 맛보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아기의 앞날을 축복해줍니다.

우리 조국의 첫돌맞이풍습은 민족의 고유한 민족전통으로 세세년년 이어지고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서 자식들의 미래와 희망을 락관하고 부부와 가족친척들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있는 첫돌맞이풍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몇해전 조국을 방문한 80고령의 한 재로씨야동포녀성은 머지않아 첫돌을 맞는 증손녀의 색동저고리를 우리와 함께 평양의 락원백화점에서 고른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동포의 증손녀는 5살정도 되였을것입니다. 그애는 앞으로 크면서 그 색동저고리를 입고 찍은 자기의 돌사진을 보며 해외에서도 조선민족임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동포여러분,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중한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도덕품성, 사상정신적풍모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자기의 가정,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하에서 차곡차곡 자래워지는 법입니다.

그럼 해외에 사는 여러분도 첫돌맞이풍습을 변함없이 이어가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지명유래

평양의 일부 지명들 (2)

평양의 모란봉구역 월향동과 가루개의 지명에도 임진조국전쟁시기 김응서장군을 도와 적장수의 목을 베게 한 평양의 명기 계월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계월향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천한 기생에 불과하였으나 평양성이 왜적들에게 유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는것을 그냥 볼수 없어 적들의 사기를 꺾고 조선군사들의 공격을 도울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적의 내부동태를 알아내여 조선군사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적장수를 처단해버릴 계책을 세웠다.

어느날 그는 성안으로 몰래 들어온 김응서장군을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적장수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적장수가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김응서장군이 손쉽게 그자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

계월향이 김응서장군과 함께 적장수의 머리를 가지고 성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왜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였다. 이때 김응서장군을 먼저 보낸 계월향은 왜적들을 다른 길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포위를 뚫고나갈수 없었다. 최후를 각오한 그는 적들앞에서 이미 가지고있던 단검으로 자결하였다.

그후 평양사람들은 평양성에서 왜적을 몰아내는데서 공을 세운 그의 애국심을 전하기 위해 의렬사라는 사당을 세웠다. 계월향이 자결한 곳을 월향마을이라 하였고 지금은 월향동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리고 그가 배를 갈라 자결한 고개를 가루개, 가루개재 등이라고도 하였다.

형제산구역 학산동의 봉수산은 다른 이름으로 《부산》이라고도 불렀다. 부산은 도끼산이라는 뜻으로서 전설에 의하면 옛날 한 장수가 이 산에서 도끼로 적들을 모조리 무찔렀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임진조국전쟁때 이 산에서 왜적들이 격퇴되고 평양성전투에서도 승리하였기때문에 인민들속에서는 《왜적들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부산에서 그친다.》라는 말을 웃음속에 자주 하였다고 한다.

룡라도의 웃쪽에 있는 왕성탄이라는 여울에도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한목숨서슴없이 바친 왕손이라는 고구려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당시 고향 평양을 위해 왕손이 몸을 던진 여울을 《왕손탄》이라 불렀는데 후세에 전해오면서 《왕손》이 《왕성》으로 변하였다.

모란봉구역의 지명에는 평양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야기도 담겨져있다.

대표적으로 모란봉구역의 흥부동을 들수 있다.

옛날 고구려의 어느 왕이 수도를 남쪽으로 옮길것을 결심하고 평양으로 지세에 밝은 한 관리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도착한 관리는 한 농가에 들려 물 한그릇을 청하였다. 집주인은 물사발을 들고 샘터에서 정성껏 물을 떠서 대접하였다. 그런데 마셔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였다. 이상한것은 술을 마시니 피로가 일시에 가셔지고 힘이 부쩍 솟는것이였다. 또 술맛만 좋은것이 아니라 산천도 기묘하고 아름답기 이를데 없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관리는 이 사실을 왕에게 그대로 아뢰였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것을 결심하였다.

이로부터 집주인이 살던 마을을 흥취를 돋구어주는 술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여 흥배라고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흥부로 변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일부 지명을 통해서도 평양의 유구한 력사와 인민의 념원, 애국심 등을 엿볼수 있다.

사회과학원 실장 서학순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2)

강원도의 특산-고성문어

문어숙회

동조선만을 끼고있는 강원도의 앞바다는 난류인 동조선해류와 한류인 북조선해류가 서로 엇바뀌는 수역으로서 여러가지 바다특산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강원도의 바다가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리용하여 물고기잡이를 많이 하였다.

1530년에 편찬된 옛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지방에서 나는 바다특산물로 해삼, 문어 등을 소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명물로 소문난것은 령진(오늘날 강원도 고성군 해방리)의 문어였다.

문어는 두족류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몸은 대가리, 몸통, 다리로 나뉘며 대가리는 작고 그 앞쪽 가운데에 입막으로 둘러싸인 큰 입이 있고 그 량쪽에 눈까풀로 덮인 큰 눈이 있다.

대가리와 몸통사이의 배쪽에는 깔때기가 있고 다리는 8개이며 다리의 안쪽에는 둥근근육성흡반이 두줄로 배렬되여있다.

고성의 문어가 이름나게 된것은 이 고장에서 문어가 많이 잡힐뿐아니라 그 맛이 좋았기때문이다.

항간에서 문어가 많이 난다는 의미에서 《문어가 생기고 령진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게 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문어는 낮에는 바위굴짬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밖으로 나와 먹이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다.

강원도어민들은 이런 문어의 생활습성을 리용하여 미끼를 넣은 단지나 통발 등의 도구로 문어잡이를 능숙하게 하였다.

문어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17~18% 들어있어 주로 랭료리에 리용된다.

문어는 그대로 료리를 하면 즙이 많이 나오고 비린내가 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끓는 물에 데쳐서 가공한다. 문어로 만든 료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어숙회, 문어무침, 문어식혜와 같은 랭료리도 있고 온료리인 문어볶음, 문어꼬치구이 등도 있다.

오늘 강원도 고성지방의 특산인 문어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정미향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 새로 발굴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였다.

발굴자들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들이다.

그들이 새로 발굴고증한것은 고구려벽화무덤 2기와 금장식품들이다.

첫번째 벽화무덤은 무덤안칸의 천정이 평행삼각고임천정으로 된 돌칸흙무덤으로서 그 형식이 전통적인 고구려시기의것이다.

4개의 벽면과 천정에서는 사신도와 련꽃무늬, 구름무늬, 련꽃잎, 보리수 등과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별자리그림부분들이 발견되였다.

두번째 벽화무덤도 고구려시기의 돌칸흙무덤으로서 여기에는 해를 형상한 그림을 비롯한 많은 벽화쪼각들이 남아있다.

무덤들에서는 정밀하게 가공된 금귀걸이와 꽃잎모양의 장식품을 비롯한 9점의 금장식품들도 나왔다.

무덤벽화들에 반영된 별자리들과 환상적인 그림들 그리고 금귀걸이를 비롯한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천문학수준과 신앙관념, 발전된 금속세공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안악군 월지리에서 발굴된 벽화무덤들이 6세기 전반기에 축조된것으로 확증하였으며 고고학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심의평가하였다.

고구려시기 3품이상의 관료들만 벽화무덤을 쓸수 있었다는 문헌자료에 비추어볼 때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이 새로 발굴된것은 이 지방이 고구려의 중요한 행정적중심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새롭게 밝히고있다.

사신도주제의 고구려벽화무덤이 안악군에서도 발굴됨으로써 천년강국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옳바른 리해를 주고 우리 민족문화의 단일성, 공통성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룡

백호

별자리

거북잔등무늬

주작

현무

평행삼각고임천정

금장식품들

왕건왕릉에서

(전호에서 계속)

미술가는 이 일대의 지명들마다 그에 알맞는 고대미술작품들이 반드시 안받침되여있는것이 특징이라며 나에게 탐승을 가자고 부추겼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났으나 동화세계같은 첩첩산중의 계곡을 따라 고일령부근에 이른것은 오전 10시가 퍽 넘어서였다. 그러나 산골짜기에 서리였던 안개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뭉게뭉게 구름을 이루며 산중턱에 걸려있었다.

홍안의 시절처럼 흥분하여 떠난 길이였건만 정작 오고보니 쉬운 길이 아닐것 같았다. 사방이 병풍속의 그림같은 산과 산으로 둘러막히고 물소리, 바람소리만이 그에 부딪쳐 메아리치는데 태고의 유적이 있다면 과연 어느 골짜기, 어느 봉우리에 있으며 또 저 안개나 타고 이리저리 휘돈다면 몰라도 다 늙은 이 두다리를 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찾아내겠는지…

그러나 무심한 안개는 저 혼자 서서히 산정을 감돌며 사라지고있으니 그림유적의 모습도 그와 함께 없어지고마는듯싶은 환각에 사로잡히게 되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즐거움에 휩싸여있어 나는 흰 바위우로 돌돌돌 소리치며 구을러가는 구슬같이 맑은 내물속에 발을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다.

《송남선생, 이곳이 바로 둘도 없는 명승지입니다. 예서 그림을 그린다면 전국미술축전에서 특등은 문제없을겁니다. 하하하!》

그러나 미술가선생은 나의 즐거운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산줄기며 산골짜기들을 살피다가 지팽이를 들어 어느 한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아직도 산정이 안개속에 잠겨있었다.

나는 잠시나마 탕개를 늦춘 자신을 질책하며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리고 신들메도 단단히 조이였다.

동쪽산의 고일령마루에 오른 후 다시 서쪽으로 굽어들어 산줄기를 톺아올랐다. 한시간쯤 걸었으나 오솔길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다시 저만치에서 이어지면서 우리를 계속 높은 곳으로만 이끌어갔다.

산정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에로 다가갔다.

바위의 서쪽면에는 너비 5m, 높이 4m정도의 면을 갈고 떠오르는 아침해가 음각으로 새겨져있는데 해의 직경은 40㎝이며 뻗어나간 12개의 해살은 그 길이가 40~50㎝정도였다. 태양의 깊이는 평균 3㎝정도였는데 고르롭지 못하고 해살의 깊이도 고르롭지 못하였다.

송남선생은 그림을 보고 청동기시대의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동기시대는 고조선시기와 일치한다. 이 그림이 단군조선시기의것으로 추정되는것은 특히 우리 겨레가 태양을 신앙대상으로 삼고 숭상한데서 그 근거를 찾을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태양을 숭배하는 고대의 그림이 발견된것은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송남선생은 말하였다.

송남선생은 고개이름이 고일령이라니 결국은 해돋이령인셈이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봉우리와 고개이름이 이 그림에서 유래된것 같다고 하였다.

나에게도 생각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고구려시기에 동명신과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등 여러건의 기록이 전해온다.

그러므로 고조선시기에 시작된 태양숭배신앙이 고구려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고려에로 계승되였다고 볼수 있는 유적이 나타난것은 정말로 기쁨중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송남선생과 나는 해돋이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온 나는 왕진에게 물었다.

《결국 고려라는 국호속에는 고조선, 고구려를 거쳐 고려에로 계승되여온 우리 민족의 태양숭배사상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고려가 고구려의 이름을 그대로 국호로 삼은 리유가 확연히 알려집니다.》

왕건왕릉의 상단중심부에는 왕건왕과 그의 안해를 합장한 봉분이 솟아있다.

릉의 가운데단과 아래단의 량옆에는 왕건을 옹위하고 통일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한 공신들의 석상이 량켠에 각각 4명씩 세워져있었다.

나는 왕건왕릉을 돌아보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왕건왕의 자취를 다시금 더듬어보았다.

왕건왕은 877년 1월에 태여나 943년 5월에 생을 마치였다.

그의 첫째가는 공적은 천년강국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국을 세운것이였다.

국가건설력사에서 계승이라는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사상과 신앙, 국호와 령역, 피줄과 표대 같은것이 속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여기에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이 관계되는것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에로 일관하게 이어진 태양숭배정신이 신앙이나 종교와 같이 굳어진 관념이였던 조건에서 그것은 사상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왕진과 나는 따스한 봄볕을 받아 빛을 뿌리는 커다란 석조건축물의 흰 반사광을 바라보며 왕릉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병풍들과 란간석, 화강석조형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사개가 꼭 맞물려져있어 고급한 목수가 나무를 깎아맞춘듯 정교하기 그지없었다.

《왕건왕이 고려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선포한데 대해서는 우리뿐아니라 주변나라들도 그 정통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나라들도 모두 고려의 수립을 고구려의 계승으로 보았습니다.》

왕진의 말을 들으며 흘러간 력사를 더듬어보는데 릉문으로 강사가 중학생들을 데리고 왔다.

《기자선생, 강사의 해설을 우리가 듣지 못하였는데 따라갑시다.》

왕진의 말에 나도 찬동하여 학생들을 따라 제당안에 들어섰다. 왕건왕의 초상에 대한 해설을 마친 강사는 벽면에 걸려진 그림들을 해설하였다. 《서경순시》, 《발해유민들을 포섭하다》, 《신라가 나라를 바치다》, 《후백제가 고려에 항복하다》…

이 벽화들은 겨레와 국토의 통일을 위한 왕건왕과 고려의 업적을 집약화하여 보여주고있었다.

왕건왕과 고려가 이룩한 업적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를 세워 민족의 혈통을 이었다는 긍지와 함께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였다는데서도 찾을수 있을것이다.

《중세시기에 우리 나라에 존재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름이 다른 봉건국가였을뿐 단군을 시조로 하는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와 력사를 가진 고조선의 후예들이였습니다. 이것은 세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단군을 자기의 시조로 내세우고 숭배해왔다는 력사기록이 뚜렷이 말해주고있습니다. 하나의 혈통이라는 민족적기초는 세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깊이 자리잡고있었으며 어느 한시도 흐려진 때가 없었습니다.》

강사의 해설에 나와 왕진도 깊이 빠져들어갔다.

세 나라가운데서 겨레의 국토통일을 국책으로 삼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나라는 오직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세 나라의 통일을 국가의 대업으로 내세우고 이 투쟁을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시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8)

- 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 -

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는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의 백화암터에 있다.

이 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에 이름을 떨친 애국적인 명승 서산대사의 업적을 찬양하여 1632년에 세운 비로서 비문은 당시의 이름난 문필가 리정구가 쓴것이다.

비는 받침돌과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졌다. 비의 전체 높이는 5.41m로서 대단히 큰 축에 속한다.

4각받침우에 앉은 거부기는 위엄있게 생긴 대가리와 세겹으로 된 6각의 잔등무늬를 섬세하게 새긴데다가 균형이 잡히고 형상이 비교적 생동하다.

비머리의 룡조각은 정면에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두마리의 룡이 서로 대가리를 마주하고 비머리의 측면과 후면에 거쳐 몸체들이 구름속에 엉킨 모습으로 형상하였다. 비머리우에는 마치 보주형탑머리처럼 복발, 보개, 보주와 같은것이 높이 솟아있다.

비문의 기본내용은 앞면에 새겨져있는데 서산대사의 경력과 공적 그리고 그의 법통에 대하여 밝힌것이다.

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는 그 규모에서나 조형예술적인 면에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우수한 대표작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준다.

본사기자

켜 줄기차게 벌려왔다.

왕진과 나는 강사를 따라가는 학생들의 대오를 따라 움직였다.

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있었다. 《이 그림은 왕건왕이 고려에로 넘어오는 발해유민들을 포섭하는 장면들을 그린것입니다.》

발해사람들의 대규모이주는 고려봉건국가의 단일한 체제에로의 민족통합의 실현이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지향에 맞는것으로써 고려의 국력과 반침략애국력량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고려는 세상에 단일민족국가로 출현함으로써 하나로 뭉친 자기의 국력을 더더욱 강화하여 그 이후 강요당한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버릴수 있었다.

실로 고려는 국토와 겨레에 대한 고구려의 통일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참다운 계승국으로 될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왕진과 함께 왕건왕릉을 내리였다.

(끝)

김현우

천연기념물

함흥반송

함흥반송(함흥퍼진소나무)은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자라는 희귀한 변형소나무이다. 450여년 자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나무이다.

나무의 높이는 4.2m이고 뿌리목둘레는 2.2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1.9m이다. 그리고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13.6m, 북남으로 13.8m이다.

나무의 줄기는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다가 2.5m높이에서 땅과 수평되게 남서방향으로 8m정도 곧게 뻗으면서 두갈래로 갈라졌다.

이 두갈래의 가지는 점차 땅에 내리드리우면서 6m나 더 뻗어갔다. 두갈래의 가지에서 많은 잔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잔가지끝에 푸른 잎이 펼쳐져있어 소반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뿐만아니라 줄기우에 길이 3.5m정도 되는 다른 2개의 작은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져있어 나무의 품위를 돋구어주고있다.

함흥반송은 나무생김새가 기묘하고 오래 자란것으로 하여 식물학연구에 적극 리용되고있으며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10월의 축포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로동당창건을 경축하여 평양의 밤하늘에 축포가 터져오른다.

걸어온 75년의 력사를 긍지높이 추억하고 걸어갈 래일의 희망찬 길을 락관하게 하는 10월의 축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262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